

# 고향체험의 소설적 형상화 방법

— 박범신의 초기 중단편 소설의 경우 —

송준호(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시진읍」의 공간 모티브 |
| 2. 고향체험과 소설창작         | 5. 「시진읍」의 인물 모티브 |
| 3. '시진'과 '강경'의 서사적 거리 | 6. 맺는말           |

## 국문초록

작가 박범신은 그가 발표한 수많은 소설을 통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걸쳐 우리 소설사에 뚜렷한 자취를 새겨왔다. 이 논문은 그의 고향체험이 초기 중단편소설에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특히 습작기에 있는 소설 창작가들에게 공간과 인물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작가 박범신의 어릴 적 고향체험이 직접적인 창작 모티브가 된 중편소설 「시진읍」(1978)을 중심에 놓고 「논산댁」(1974), 「겨울 아이」(1976), 「염소 목도리」(1977), 「역신의 축제」(1978), 「읍내 떡빵이」(1979) 등의 중단편 소설을 차례로 분석했다.

주제어 : 고향, 체험, 인물, 공간, 상상력

## 1. 머리말

‘목매달고 죽어도 좋은 나무’라고 했다. 이걸 작가 박범신이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해 직접 밝힌 비유적 정의 가운데 하나다. 평생의 삶을 걸만한 영역이고 작업이 문학적이고 소설창작이라는 것이다. 이걸 지난 40여 년간 작가로서 그가 얼마나 치열한 자세로 소설을 써왔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문체는 굳더더기 없이 정갈하다. 감각적이고 화려하다. 서사 구성 역시 소설창작자들이 전범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촘촘하고 탄탄하다. 그런 바탕 위에 박범신은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원초적 욕망을 세밀화처럼 그려낸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쓸쓸한 내면을 천착하는 가운데 본연의 순수를 갈망한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오면서 박범신은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정면으로 관통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걸쳐 우리 소설사에 뚜렷한 족적을 새길 수 있었다. 그걸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세간의 평가대로 박범신은 ‘영원한 청년 작가’이기 때문이다.

어느 작가든 습작기와 등단, 그리고 일정 기간의 무명시절을 거치게 마련이다. 박범신의 경우는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어 등단한 뒤부터 1978년에 우리나라 소설 독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장편소설 『죽음보다 깊은 잠』 직전까지가 거기에 해당된다. 약 5년에 이르는 그 시기에 박범신은 20편 가까운 중단편 소설을 발표했고, 『토끼와 잠수함』, 『덧』이라는 제목을 단 두 권의 창작집을 발표했다. 오늘날에 비해 발표 지면이 크게 부족했던 당시 문단 상황을 감안하면 ‘무명작가’ 시절 그는 적지 않은 분량의 소설을 썼던 셈이다.

작가는 타인의 체험을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인 것처럼, 또 자신이 직접 부딪쳤던 일이면서도 그게 다른 누군가의 체험인 양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그런 변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설적 상상력이다. ‘이미지를 획득하거나 그것을 창조하는 능력, 또는 그러한 이미지를 고안하는 과정을 주관하는 힘’<sup>1)</sup>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신예작가의 경우는 한동안 후자 쪽을 거치는 가운데 전자 쪽으로 이야기의 지평을 점차 확대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성장기와 습작기를 거쳐 소설 독자들에게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까지 작가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체험이 소설적 상상력의 기반을 이룬다는 뜻인데, 박범신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시기 박범신의 소설적 상상력의 기반을 이룬 체험은 그것이 이루어진 공간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서울체험과 고향체험이 그것이다. 그런데 서울체험에 기반을 두고 창작된 그의 초기 단편소설「청운의 꿈」같은 작품도 사실은 고향체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청운의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던 주인공이 거대 도시에서의 타향살이에 한계를 느끼고 귀향하는 과정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체험이야말로 작가 박범신의 초기 중단편에 나타난 소설적 상상력의 든든한 기반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고향을 가리켜 ‘문학적 자궁’이라고 고백한 바 있으니 성장기와 청소년기에 직접 보고 느꼈던 고향의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이야말로 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어머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박범신의 초기 중단편소설에 그려진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 고향에서 차용해 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 몇 가지 공간 모티브와 다양한 인물들을 그는 어떤 방식으로 소설 속에 재현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 중편소설 「시진읍」(1978)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논산댁」(1974), 「겨울 아이」(1976), 「염소 목도리」(1977), 「역신의 축제」(1978), 「읍내 떡뽕이」(1979) 등의 중단편

1)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222면.

소설을 차례로 읽었다.

## 2. 고향체험과 소설창작

작가의 고향체험이 그의 소설에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전기적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박범신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전북 익산군 황화면 봉동리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박범신의 연보를 보면 그의 출생지가 연무읍으로 되어 있다. 연무읍은 1963년에 논산군 구자곡면하고 익산 황화면을 합병해서 새로 만들어진 지명이다. 그건 그가 거주지를 강경으로 옮긴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의 출생지를 연무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다.

박범신이 연무읍에서 강경읍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인 1960년의 일이다. 당시 그의 부친은 강경 읍내에서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경중학교로 전학한 박범신은 졸업할 때까지 그는 계속 강경에 살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박범신은 1962년에 익산에 있는 남성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그 또한 다른 많은 학생들처럼 기차 통학생이었으며, 익산 변두리의 가난한 지취생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196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여전히 강경 사람이었다고 보는 까닭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전주교육대학교로 진학하는데,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강경 사람이었다. 박범신이 강경 땅을 본격적으로 떠나 살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 무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산간벽지에서 2년 동안 교사로 지낸 그 시기에 박범신은 시와 소설을 집중적으로 습작한다.

박범신은 1969년에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다. 가난한 청년의 상경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짧은 기간 서울에 살면서 소위 밑바닥 생활을 집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연보에

는 그 시절이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착취와 가난, 불평등한 부의 분배 등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시의 생태를 절실히 체감’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69년에 다시 강경읍으로 돌아와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학한 박범신은 2년 후인 1971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런 다음 다시 상경해서 광고회사와 신문사에서 일한다. 그는 이듬해인 1972년에 강경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함으로써 두 번째로 귀향한다. 그 무렵 결혼한 그는 1973년 벽두에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어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된다. 소설가로의 등단은 그의 세 번째 상경이자 본격적인 서울생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그 오래 뒤인 2011년에 논산시민으로 귀향하기까지 그는 줄곧 서울 혹은 수도권 시민으로 살았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재구성해본 박범신의 초기 연보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익산군 황화면에 살았지만 부친이 강경에서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경읍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강경읍으로 이사한 후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를 줄곧 그곳에서 보냈다.

작가 스스로도, “내가 태어난 곳은 논산 연무이지만, 문학적 고향은 강경이라 할 수 있다. 금강과 함께 한때 번창했지만, 시간이 정체되어 버린 곳이 강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태어나서 본격적으로 상경한 1973년까지 13년간(길게는 30년 가까이) 강경읍은 언제나 그의 몸과 마음의 공간적 중심이었다.

### 3. 시진과 강경의 서사적 거리

소설의 플롯을 짜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장단편을 가리지 않고 한 편의 소설을 쓰는 데는 인물, 사건과 더불어 공간을 설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특별시를 제외하면 실재하는 지명과

공간적 특성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소설을 쓰는 작가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래서 때로 작가는 영문 이니셜로 지명을 대신하거나, 가상의 지명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의 ‘무진’, 황석영의 단편소설 「삼포가는 길」의 ‘삼포’ 같은 지명이 그런 예에 해당된다.

박범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중편소설 「시진읍」의 공간적 배경인 ‘시진’이라는 지명이 그러하다. 이진 「시진읍」을 비롯해서 논산 지역(특히 강경읍)을 배경으로 쓴 몇 편의 초기 중단편소설을 두고 말이다.

1978년에 발표된 「시진읍」은 그의 두 번째 단편집 『뗏목』에 수록된 「읍내 떡볶이」와 함께 장편소설인 『죽음보다 깊은 잠』 이전에 작가가 쓴 중편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시진읍에 있는 법원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다루고 있다. 지도상에 없는 도시 ‘시진읍(市津邑)’은 굳이 ‘나루 진(津)’을 주목하지 않더라도 작가의 고향인 강경읍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음 같은 장면이 그걸 말해준다.

북쪽으로 옥녀봉이 있고 남쪽으론 채운산, 서쪽 편에 돌산이 자리 잡긴 했지만 그것들은 시진읍을 둘러싸고 있는 너른 벌판에 비하면 바람막이 정도도 못 되었다. 그래도 시진읍의 분위기가 아주 삭막하지만은 않은 것은 북쪽에서 급하게 빠져나와 완만하게 휘돌아나가는 금강이 읍의 허리를 싸고돌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조석 간만의 차이가 일 미터나 되는 이 강은 시진읍엔 젖줄 같은 구실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에 삶을 기대고 살았다.

본래 시진읍은 오랜 시장 도시요, 하항河港 도시였다. 구한말엔 중국 소금이 대량으로 유입돼 삼남 지방은 물론 기호 지방까지 팔려나갔고 서해를 오가는 경강선들이 빠짐없이 시진읍에 들러 짐을 풀었다. 일제 때까지만 해도 아랫장터엔 근대식 운하와 함께 갑문이 설치돼 있어 가게 앞에서 직접 짐을 하역하는 배를 볼 수 있었다. 파시波市가 열릴 때는 배가 십 리나 이어져 있었다고들 했다. 쌀만 해도 삼십만 석, 소금 팔만 가마가 소비됐을 정도였다.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다.<sup>2)</sup>

2) 박범신, 「시진읍」, 『한국대표작가중편소설 100선』, 고려원, 1980, 22면. 이하 이 글의 중심 텍스트인 중편소설 「시진읍」의 본문 인용은 각주를 생략하고 이 책의 쪽수

북쪽의 옥녀봉, 남쪽의 채운산, ‘읍의 허리를 싸고 도는 금강’이야말로 시진읍이 강경읍의 다른 이름이라는 확실한 증거다.<sup>3)</sup>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작가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진읍(市津邑)」은 내가 오래 살던 읍내의 한 단면을 그린 구상화이며 동시에 소외받은 땅의 황량한 조감도다. 나는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하고, 분노하고, 패배하는가를 가급적 정직하게 쓰고자 하였다. 또 삭막하지만 광활한 벌판, 황톳빛이지만 끝없이 흐르는 강, 그 강과 그 벌판을 사철 떼지어 지나다니는 바람, 그것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굴절시키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도시도 농촌도 아닌 ‘읍’의 실상을 수직이 적은 목화처럼 그려내고자 하였다. 이 「시진읍」에서 내가 만났던 세트는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나를 사로잡고 있을 게 틀림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나는 「시진읍」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곳의 기후에 익숙하니까.<sup>4)</sup>

작가 자신이 ‘오래 살던 읍내’라면 그게 강경읍일 텐데 어째서 그는 ‘시진’이라는 지도상에 없는 이름을 만들어 쓴 것일까. 이 또한 ‘작가의 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소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강경읍만의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우선인 개발주의가 판치는 세상의 모든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강경읍은 고유명

---

만 밝히기로 한다.

- 3) 강경읍(江景邑)은 충청남도 논산시의 서부에 위치한 읍이다. 논산천, 강경천이 논산평야를 가로질러 금강으로 유입되는 곳으로, 수로와 육로를 잇는 큰 포구로 번성하였다.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 논산시의 주요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산물로 젓갈이 유명하다. 강경포(江景浦)는 동해안에 위치한 원산시의 원산항과 더불어 ‘조선 2대 포구’로 불렸던 항구로 하항(河港)이었고, 100여 척의 배가 드나들 정도로 큰 포구였다. 쌀을 비롯한 해산물 등의 집산이 활발하여 금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중심지였으며, 전국 각지의 상품을 유입하여 금강 주변 지역으로 분배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로 인해 강경장은 평양·대구와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번성하였다.(인터넷 서적 『위키대백과』에서 인용함)
- 4) 박법신, 『작가의 딸』, 앞의 책, 1면.

사인 동시에 보통명사인 셈이고, 같은 까닭으로 ‘시진읍’ 또한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이기도 한 것이다.

중편소설 「시진읍」은 ‘법원 이전’이라는, 읍민들에게는 큰 사건을 두고 작중 인물들이 벌이는 갈등이 사건의 중심축을 이룬다. 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 또한 당시 강경읍을 배경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경’은 공간뿐 아니라 작가가 ‘많이 알고 있던 「시진읍」의 사람들’까지 포괄한다. 작가는 그런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소설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리얼리티란 현실의 실제 국면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충분한 탐구 끝에 숙성하여 하나의 모습으로 구체성을 띠 때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체험의 주체는 작가 자신이지만, 그 체험은 모든 사람들의 체험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sup>5)</sup>

이제 몇 가지 공간과 인물 모티브를 중심으로 작품에 그려진 당시 강경읍의 모습을 따라가 볼 차례다.

#### 4. 「시진읍」의 공간 모티브

소설에서 배경은 인물이나 플롯, 시점 등에 비해 주변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독자들을 설득해 내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소설의 배경은 단순히 스토리의 물리적인 배경만이 아니다. 배경은 제시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역사적 환경과 문화적 태도,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그 스토리 속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소설 「시진읍」의 공간적 배경 설정도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벌이는 크고 작은 사건은 모두 사실상

5) 현길언,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1994. 27면.

6) 이미란, 『소설창작강의』, 경진출판, 2015. 177면.

강경읍이라는 공간적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다.

작중의 인물들 역시 강경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인물들의 이동에 따라 당시 강경읍의 산과 강, 읍내 거리 등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런 장면을 통해 작가는 법원 이전과 관련된 역사적 환경과 시대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진읍」에 제시된 공간적 배경은 소설의 전면과 중앙에 있지 않은 것, 즉 눈에 띄지 않는 것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풍경, 건축 양식, 기후뿐만 아니라 소설의 밑바탕이 되는 문화, 인물의 과거, 지역사회나 국가의 역사, 사회학, 기술, 철학, 예술, 관습 등 모든 사항을 포괄한다.<sup>7)</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진읍」에 묘사된 당시 강경 읍내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역전 사거리에서 좀 더 올라가면 노란 페인트칠을 한 은성극장이 나오고, 은성극장을 지나가면 역의 화물창고로 빠지는 외진 길이 있었다. 빈 밭 가운데 농협이 관리하는 쌀 창고가 몇 동 서 있는 곳이었다. 밭의 한쪽은 읍내의 허리를 가르고 흐르는 개천과 닿아 있었고, 농협 창고와 개천 사이 중간쯤에는 엉성하게 블록만 쌓아 올린 건물 한 채가 썰렁하게 서 있었다. (17면)

이런 식으로 그 옛날 강경읍 거리 한쪽이 소설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묘사된다. 「시진읍」 다음 해에 발표된 중편소설 「읍내 떡빵이」의 무대는 ‘시진’이 아닌 ‘강경’이다. 외지에서 흘러온 작중인물 ‘굴노인’이 ‘삼십 년 동안 떠나지 않고 살아온 곳이 이곳 강경’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대목이 그 확실한 증거다. 「읍내 떡빵이」의 도입 부분에도 당시 강경 읍내 거리의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읍의 중앙을 곧게 가르고 지나는 큰길을 따라 서편 끝에 이르면 삼거리를 만난다. 똑바로 가면 이리에 닿을 수 있고, 왼편으로 휘어지면 채운산을 빙 돌

7) Damon Knight, 정아영 옮김, 『단편소설 쓰기의 모든 것』, 도서출판 다룬, 2017, 202면.

아 여산, 금마, 그리고 곧장 전주까지 뿔 수가 있다. 읍내에선 이곳을 빗득거리라고 부른다. 닷새마다 한 번씩 장이 서고 장의사, 자전거포, 잡화점, 지물포 약국 따위가 삼거리를 중심으로 영성하게 몰려 있다.<sup>8)</sup>

중편소설 「시진읍」과 「읍내 떡뽕이」를 읽다 보면 정겨운 이름들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강경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지명들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인용문에 보이는 채운산 아랫동네 이름은 ‘분토골’이다. ‘빗득거리’도 마찬가지다. 작중인물 중 떡뽕이에게 몹쓸 짓을 일삼는 인물이 성구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전거포가 바로 그 빗득거리에 있다. 또 빗득거리에서 굴노인네 토굴 앞을 지나쳐 셋길을 따라가면 나루터에 이른다. 나루터를 기점으로 돌산 주변에 떨어져 나앉은, 항상 강바람이 사는 ‘바위꼬쟁이’에는 굴노인을 친동기간처럼 보살펴주는 영숙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고 있다. 그들은 강경을 황산리에 있는 ‘임리정 팔괘정을 지키고 죽림서원을 돌보며 탄 맘 한번 품어보지 않’고 살고 있다. 왕도의 수하인 넘치가 쫓기대회를 의도적으로 훼방을 놓기 위해서 찾아가 옥박지른 이도 ‘염천동 소금집 소금쟁이’다.<sup>9)</sup>

강경 ‘읍내의 허리를 가르고 흐르는 개천’에 놓인 ‘대흥교 다리’ 또한 「시진읍」과 「읍내 떡뽕이」에서 빼놓은 수 없는 공간적 배경 가운데 하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 땅의 어느 소읍을 가든 개천이 흐르고 있고, 그걸 가로지르는 크고 작은 다리 한두 개쯤은 다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으레 동네 거지들이 살았다.

그 시절 강경읍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진읍」의 경우 작중인물인 곰배팔이는 청년회관으로 잠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흥교 다리 밑’에 거적을 깔고 잠을 잤으며, 곰배팔이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곰보택은 ‘다리 끝에 잇대어 있는 낡은 판잣집’에 살고 있다. 「읍내 떡뽕이」의 거지 왕초 이쁜이가 예닐곱 명의 떼거지를 데리고 사는 곳 또한 ‘대흥교 다리 밑’이다.

8) 박범신, 「읍내 떡뽕이」, 『덧』, 도서출판 은애, 1979, 7면.

9) 2011년에 논산시민으로 돌아온 작가가 맨 먼저 쓴 장편소설 『소금』의 주요 공간적 배경도 ‘염천동 소금집’이다.

읍내 거리와 더불어 강경읍의 허리를 싸고돌아 흐르는 ‘금강’ 역시 그 시기 박범신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간 모티브 가운데 하나다. 강경읍에서 금강에 이르는 강둑은 ‘빈 장터’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시진읍」에서 수하의 배신을 확인한 왕도가 법원 이전 반대 운동에서 손을 빼겠다고 하자 백반 씨가 그를 데리고 간 곳도 바로 그 금강 둑이다. 「읍내 떡빵이」에서도 강과 갯벌의 모습이 마치 사진을 들여다보는 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농업진흥공사의 뒷담과 초가집 몇 채를 지나가면 강둑이 있고, 둑에 올라서면 시야는 단번에 환히 열린다. 황산벌을 지나온 금강의 한 자락이 리운자 모양으로 완만하게 서해의 군산항을 겨냥하고 휘돌아가고 있다. 여름에는 황토빛으로 뒤집혀 흐르던 끔강 물이지만 겨울엔 암회색으로 얼어붙는다. 강 너머는 갯벌이다. 마른 갈대들이 제멋대로 엮어진 채 동사하고, 칼날 같은 바람이 그 갯벌을 힘껏 차면서 이쪽 편이 높은 돌산에 목을 매단다. 강변에서부터 야금야금 먹어들어간 돌산은 깎아지른 절벽의 맵시를 하고 맨살을 드러내며 강 바람을 받고 있다. (7면)

「읍내 떡빵이」의 굴노인과 떡빵이가 함께 사는 토굴은 또 그 강의 제방 아래에 있다. 박범신의 초기소설을 꼼꼼하게 읽은 독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작중의 사건이 긴박하게 흐르는 순간에는 으레 철길을 달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멀거나 가까운 데서 들려오거나, 작중인물이 ‘강 건너편의 허영계 얼어붙은 갯벌’이나 ‘맨몸으로 떨고 있는 프플러’를 떠올리면 또 어김없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곤 한다는 사실을. 단편소설 「겨울 아이」는 ‘고향으로 가는 강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의 집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나뭇처럼 선 채 강심을 훑고 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고향에 올 때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가슴 한자리가 차갑게 비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흔들리는 수면, 어두운 개펄과 키 큰 미루나무, 수련거리는 갈대

밭, 그리고 두런두런 사라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고 가까운 저녁 불빛… 그 모든 침잠된 풍광과 적막한 불빛 때문에, 귀향할 때의 나는 매번 조금 서러워져서, 도시에서의 질기고 때묻은 껍질들을 바람 센 강변에 훌가분하게 벗어놓는 듯한 기분이 되곤 한다.<sup>10)</sup>

작가에게 있어 ‘금강’이 어떤 공간적 의미를 주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가는 이런 배경묘사를 통하여 주제를 암시하거나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는 또한 인물과 인물의 행동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소설의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sup>11)</sup> 「시진읍」의 백만이 왕도에게 들려준 미루나무에 얽힌 이야기나 어린 시절 강에서 얼음을 지치며 놀았던 추억은 작가 자신 혹은 그 시절 강경에서 자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닐 수 없다.

「시진읍」과 「읍내 떡뽕이」는 물론이고, 1970년대 후반에 강경(을 비롯한 논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 묘사된 거리나 자연 풍경은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모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걸 되살리는 방법은 빛바랜 사진이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리는 것이다. 그런데 박범신의 초기 중단편소설에 그려진 작중인물의 기억이나 상념, 시선과 행동, 그리고 다양한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절 강경읍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생동감 있다. 그의 초기 여러 중단편소설이 향토 사료로서도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 까닭이다.

## 5. 「시진읍」의 인물 모티브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쓴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든 다른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득한 것이든 모르는 건 쓰지 못하고, 쓸 수도 없다. 직간접 체험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이 소설 창작활동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

10) 박범신, 「겨울 아이」, 앞의 책, 107면.

11) 이미란, 앞의 책, 186면.

하는 까닭이다.

작중의 공간뿐 아니라 인물 설정도 예외가 아니다. 고향을 배경으로 한 박범신의 초기 중단편소설에는 다양한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 인물들은 작가가 강경에 살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함께 어울렸거나, 가족이나 친인척들 가운데 누군가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적어도 한두 번쯤은 전해들은 적 있는 고향 사람들일 것이다.

중편소설 「시진읍」과 「읍내 떡뽕이」의 읽는 맛을 더해주는 인물이 있다. 곰배팔이와 떡뽕이다. 두 소녀는 정신과 육체 모두 불구자다. 작가는 일찍이 그의 중단작품인 단편소설 「여름의 잔해」에서 주인공 석진이나,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실성한 사팔뜨기 여인 같은 불구적 인물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준 바 있는데, 두 소녀를 대하는 태도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곰배팔이나 떡뽕이 같은 소녀들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의 소읍 어디서나 한둘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의 인물이다. 「시진읍」을 읽는 독자들은 이런 인물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불구의 양상이나 삶의 궤적은 달라도 강경읍 아니면 가까운 마을 어딘가에 살았던 실재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곰배팔이와 떡뽕이는 자주 감지도 빗질도 하지 않아서 머리칼이 언제나 철사줄처럼 뿔뿔하게 일어서 있다. 이런 특징은 그런 불구적 인물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곰배팔이와 떡뽕이는 외모뿐 아니라 습관도 비슷하다.

「시진읍」을 보면 곰배팔이는 곰보택이 양말을 ‘일껏 마련해서 신겨주면 답답한지 하루이틀도 지나지 않아 벗어던지는 버릇’이 있다. 「읍내 떡뽕이」에서도 굴노인이 양말을 ‘일껏 얻어다 신겨줘도 갑갑하다고 하루도 못 신고 벗어버리는 게 떡뽕이의 성미’를 목격할 수 있다. 동네 아이들에게 노래와 돌팔매질로 놀림을 받는 모습도 다르지 않다. 한테서 잠을 자고, 동네 건달 패들 가운데 하나를 무작정 좋아한다. 과부택들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일체감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다르지 않다.

소설의 인물 창조에 있어서 리얼리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독자가 감정적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자를 스토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인물과의 유대감이다. 독자가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 완벽하지 않고, 설령 부정적인 특성을 지녔더라도 공감이 가는 인물, 내면의 갈등이 있는 인물 등 독자 자신의 많은 것을 상기시키는 인물이 독자의 감정을 움직인다.<sup>12)</sup> 「시진읍」과 「읍내 떡뽕이」의 곰배팔이와 떡뽕이 역시 이런 유형에 속하는 전형성을 띠고 있다.

곰배팔이와 떡뽕이는 모두 작품의 끝에 가서 희생제의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양처럼 순진무구한 인간형으로 그려져 있다. 그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불구자이며 광인이라는 작가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육체와 정신 모두 온전치 못한 두 소녀를 통해 그런 인물이 빚어내는 삶의 정직성과 건강성을 우회적으로 대변하고 싶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을 병신 취급하는 작중의 여러 인물들을 비롯한 우리들 모두 역시 사실은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 설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진읍」과 「읍내 떡뽕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다른 하나는 ‘악한’이나 ‘촌놈’에 해당되는 유형의 인물들이다. 시진읍과 강평읍의 갈등을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 계기로 삼는 허정술 회장, 읍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성구와 공모해서 떡뽕이를 유린하는 「읍내 떡뽕이」의 극장 주인 맹꽂이배 만상 씨 같은 이들이 ‘악한’에 해당된다. 「논산댁」의 명수 씨도 짬밥을 미끼로 논산댁을 통해 욕정을 해소하려 드는 일종의 파렴치한이라고 할 수 있다.

‘촌놈’들도 여럿 등장한다. 「시진읍」의 왕도, 성일, 달중, 녀치, 끼병이, 뭉키 같은 인물들이다. 「읍내 떡뽕이」의 촌놈들은 성구, 이뿐이, 칠푼이 등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런 인물들을 아주 친숙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음의 대화가 그걸 말해준다.

“혹시 형, 강평하고 줄 대고 있는 거 아냐?”

12) 이미란, 앞의 책, 150면.

“이 새끼, 강평하고 줄 댔음 어때.”

“그렇지만 넙치 형이 알면…”

“까고 자빠졌네. 넙치고 좇이고 다 소용없는 거야. 그치는 허 회장한테 붙어 백만이나 왕도는 배신해도 강평 쪽에 붙어 시진을 통째로 배반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임마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지 뭐냐 말야. 이왕이면 뺏 뺏한 현찰 작작 건네주는 쪽이 젤이다. 그 말이야. 짜식 쪼쪼 매기는…” (66면)

이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본래 갖고 있는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 ‘독자는 소설 속의 인물을 이름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이름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첫째 요소이다. 올바른 이름의 선택은 성격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름을 통해서 많은 연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보고 그 성격을 유추하게 되는 수가 많다. 이름의 어감이 부드러우면 그만큼 등장인물의 성격도 부드러운 경우가 많고, 이와 반대로 이름의 자형이나 어감이 거칠면 그의 성격도 거칠게 받아들여진다. 에펠레이션(Appellation)은 말하자면 독자의 습관과 작중인물의 이름이 주는 인상을 부합시켜서 그 성격을 더욱 생생하게 하는 방법이 속하는 것이다.<sup>13)</sup> 작가는 또 이런 촌놈이나 건달들이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 하나에도 공을 들임으로써 소설적 리얼리티를 강화하고 있다.

박범신의 초기 중단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다른 인물 유형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삶의 건강성을 굳건히 지켜가는 촌부와 여러 ‘어머니’들이다. 자신의 유일한 거처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돈 전부를 떡뽕이를 시집보내기 위해 이쁜이에게 아낌없이 내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굴노인, 친동기간인 누이와 매부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내일의 소박한 꿈을 꾸면서 고달픈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염소 목도리」의 요란쇠와 용안택 부부, 거지인 굴노인과 떡뽕이를 가족처럼 보살피주는 「읍내 떡뽕이」의 영숙 아버지와 어머니, 곰배팔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곰보택, 떡뽕이를 큰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들창코 까치말택, 돼지 몇 마리를 키우며 온갖

13) 정한숙, 『현대소설 창작법』, 웅동, 2000, 80면.

고난을 곳곳이 견뎌내는 「논산댁」의 논산댁, 불의의 사고로 죽은 어린 딸의 주검을 옆에 두고도 자신의 가족을 죽음의 상황으로 내몬 ‘원수’의 아들인 ‘나’를 용서하는 「겨울 아이」의 아버지는 청년시절 작가가 그의 고향인 강경에서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던, 가난하지만 삶의 건강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들일 것이다.

「시진읍」에서는 작가 자신의 고향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건 주로 작중의 주요인물인 백만과 왕도의 기억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악한이나 촌놈 유형의 인물들이 뒤섞여 있는 청년봉사회 소속 건달들에 비하면 백만은 상대적으로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는 다른 건달들에 비해 의지도 굳고 신념도 강하다. 그는 시진읍 사람들이나 왕도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일종의 영웅적 속성을 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백만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고 한 가지 의혹이 생긴다. 그는 혹시 작가 자신을 투사시킨 인물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자신이 시진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강변에 심어놓은 미루나무가 소리 없이 그러나 꾸준히 자라는 것에서 삶의 보람 내지는 생의 희열까지 느끼는 백만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남한테 천대받고 버림받는 땅이라고 그냥 내던져도 되겠니? 천대받는 아버지라고, 천대받는 자신이라고 그냥 팽개쳐도 괜찮겠어? 나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개빠다귀 같은 곳, 개빠다귀 같은 나, 너, 우리. 그래그래. 시진읍은 말이야, 곧 무시받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 그 말이다...” (53면)

백만의 웅변은 자기비하적 관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왕도를 비롯한 시진의 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아픈 일침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왕도는 증조부의 행적이 남겨준 값진 교훈을 통해서, 또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시진읍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내면에 키운다. 하지만

그 역시 잠깐의 서울 생활에서 겪은 시골 출신 특유의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때 서울에서 지낼 때가 있었다.

고향이 어디시던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묻곤 하였다. 모호한 말투로 그러나 탐색하는 눈을 빛내며 그들이 물을 때마다 왕도는 자학하는 기분을 느끼곤 했다. 특정 지역이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었다. 그들에겐 강령이나 시진이나 하는 건 근본적으로 관심조차 없었다. 아무렇게나 편의대로 다루어도 될 땅이었다.

“시진입니다.”

“아, 하와이 가까운 데.”

상대편은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며 껄껄대고 웃었다.

“씨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왕도의 얼굴에서 칼자국이 꿈틀 움직이는 듯하면, 그제야 상대편은 언제나 비굴하게 웃으면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곤 했다. 진골도 있고 성골도 있고 노비도 있었다. 출신 성분도 있었다.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래 묵은 상처를 일없이 헤집는 것 같아 늘 가슴이 아팠다. 쓰라린 소외감이었다. (69면)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의 떠오르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왕도가 느꼈던 ‘쓰라린 소외감’ 역시 작가 자신이 서울 생활을 통해서 직접 겪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 5. 맺는말

논산(좁게는 강경읍)의 산과 강, 사람들을 형상화한 것은 박범신의 초기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어느 시인은 자신을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했다. 물론 청년기부터 오늘까지 일관되게 작가 박범신이 그토록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도 8할이 강경의 사람들, 강경의 산

과 강이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2011년에 논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뒤 발간한 첫 장편소설 『소금』의 배경지 또한 논산이고 강경인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여산장도 보고, 익산장도 보고, 삼거리장, 연산장, 논산장, 그놈의 장날마다  
어서 와서, 열 마리, 스무 마리, 멍멍이한테 칼질도 하고, 흑염소에 망치질도  
하고, 돼지 불알도 단칼에 발겨줬으면 싶었다.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품바품바 잘한다  
경충 뛰면 연산장 신발 없이 못 보고

갑자기 요란쇠가 목줄기를 뺏뺏이 세우며 한가락 척 뽑아 넘겼다. 돼지 먹  
따는 소리처럼 앙알앙알 갈라진 소리였으나, 어칠비칠 페달을 밟는 리듬에 맞  
춰 어깨춤까지 곁들였기 때문에 요란쇠의 가락 속엔 독특한 흥취가 절로 났  
다. 이어 기다렸다는 듯 용안택이,

논산장을 보갔더니 새서방 많아 못 보고  
황등장을 보갔더니 영감이 많아 못 보고

이번엔 다시 요란쇠가 더욱 잦은가락으로 엉덩이까지 들썩거리며 한바탕  
어우러지는데,

연무대에 삼거리장 술집 색시 제일이요  
익산왕궁 금마장은 처녀 장군 제일이요  
서서보는 여산장은 마을 꽃감 제일이요  
코 풀었다 강경장은 새우젓이 제일이요  
얼씨구절씨구 잘한다 품바품바 잘한다  
절씨구 얼씨구 잘한다 품바품바 잘한다<sup>14)</sup>

14) 박범신, 「염소 목도리」, 앞의 책, 217면.

박범신의 초기 단편소설 가운데 하나인 「염소 목도리」의 끝부분이다. 논산 지역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사고팔거나 직접 잡아주기도 하는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내일의 소박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요란쇠와 그의 처 용안택이 하루 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연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고받는 ‘잡은가락’이고 ‘폼바’다.

“헤헤헤, 삭동방머리 쉬파리 좇만큼도 읊는 소리 그만허슈. 자기가 데리고 살면서 시집은 무신 놈의 시집유?” 이걸 떡뽕이를 데리고 살아달라는 굴 노인의 말에 이뿐이가 콧방귀를 끼면서 내뱉은 말이다. ‘워똥졌어?’, ‘나 여깃슈.’ ‘워찌자는 거유?’ 등과 같이 그는 논산 지역의 지리나 사람들뿐 아니라 토속어까지 생생하게 살려 쓴 작가이기도 하다.

작가 박범신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걸쳐 우리나라 소설사의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다. 논산 지역을 배경으로 그가 쓴 여러 소설들은 또 그 지역의 소중한 향토 자산이고, 문화 콘텐츠다. 작가에게 고향인 강경이 특별한 만큼 논산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박범신이라는 작가를 더욱 각별하게 해석해야 하는 까닭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박범신, 『시진읍』, 한국대표작가중편소설 100선, 고려원, 1980.

박범신, 『덧』, 도서출판 은애, 1979.

박범신, 『소금』, 한겨레출판, 2012.

### 2. 논저

송하춘, 『발견으로서의 소설 기법』, 현대문학, 1993.

이미란, 『소설창작강의』, 경진출판, 2015.

전상국, 『당신도 소설을 쓸 수 있다』, 문학사상사, 1991.

정한숙, 『현대소설 창작법』, 웅동, 2000.

현길언,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1994.

Knight, Damon, 정아영 옮김, 『단편소설 쓰기의 모든 것』, 도서출판 다른, 2017.

【Abstract】

## Experience in Hometown for Writing Novel

Song, Junho

This study is the characters and spaces shown in Novelist Park Bum Sin's early novels. Especially Park Bum Sin depicted his hometown Kang-Kyung's mountains, rivers, streets, bridges, buildings in his early novels. Every novelist write his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So depicted space background and characters in the novels is power of interpretation. And this is very important to study on method of writing novel.

**keyword** : creative writing, character, space, imagination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